

EDUCATION

고등

#기숙사
#입사 기준
#기숙사 비용

‘홀로서기’ 지방 학생들을 위한 서울 주요 대학 기숙사 총정리

합격의 기쁨을 마음껏 만끽한 후, 서울로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걱정이 앞선다. 아직 어린데 위험하지는 않을지, 규칙적인 생활은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기숙사만큼 든든한 곳도 없다. 대부분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하고, 또래 친구들과의 공동 생활을 통해 새로운 대학 생활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가 공개한 2021 대학별 기숙사 운영 현황을 참고해 서울 주요 대학 기숙사의 신입생 선발 인원과 입사 기준을 정리했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
자료 대학 알리미 ·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 각 대학 홈페이지

2020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 18.2%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이 22.4%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25.5%인 데 비해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8.2%로 7.3% 낮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 중 기숙사 수용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연세대였다. 연세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36.6%로 재학생 2만6천353명 중 9천634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는 신입생 전원이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하는 RC(Residential College) 체제의 영향이 크다.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25.3%) 성균관대(21.4%) 경희대(20.6%) 한국외대(19.6%) 순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높았고 서울 주요 15개 대학 중 고려대의 기숙사 수용률이 10.8%로 가장 낮았다.

성적, 거리 순 또는 추첨 선발

대학 기숙사는 성적과 거리 순 또는 추첨으로 선발하고 대부

분 지방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표).

건국대의 입사 선발 기준은 통학 거리, 성적, 공동 생활 적합성 등을 고려한 다면 평가 방식이다. 전체 수용 인원 1천397명 중 신입생 수용 인원은 346명으로 수용률은 24.77%이다. 총 실수가 많은 건물의 1인실 비용은 2020년 기준 61만8천900원, 2인실 비용은 40만3천900원이었다.

경희대는 서울캠퍼스에 세화원과 행복기숙사를, 국제캠퍼스에서 우정원과 제2기숙사를 운영한다. 행복기숙사의 경우 거리 기준으로 선발하며 2인실 비용은 21만천 원으로 서울 주요 대학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제2기숙사는 성적과 거리, 장기 거주 신청 가산점 등을 적용해 선발하는데 신입생의 경우 성적은 만점 처리하며, 2인실 비용은 34만5천300원이다.

고려대는 기숙사 신청 인원수를 고려하여 전형별, 모집 단위별, 남·여별 입학 석차 순으로 선발하는데 출신 고교가 서울 지역이 아닌 지원자가 1순위에 해당한다. 총 수용 가능 인원 1천840명 중 신입생 수용 인원이 1천120명으로 신입생 선발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표_ 2021 서울 주요 대학 기숙사 현황			
대학	기숙사명	신입생 수용 인원	신입생 입사 기준
건국대	KUL HOUSE	346	통학 거리, 성적, 공동 생활 적합성 등을 고려한 다면 평가 방식
	세화원(서울캠퍼스)	86	입학 성적(100점) + 거주지(경인 지역: 80점, 그 외 100점)
경희대	행복기숙사(서울캠퍼스)	304	우선선발: 장애인, 사회적 배려자(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한부모가정) 신·편입생: 거리(지방) 수도권으로 선발(동점자의 경우 무작위 선발)
	우정원(국제캠퍼스)	17	직전 학기 성적 환산점수 50%+거주지 거리 점수 50%+우정원 생활점수
	제2기숙사(국제캠퍼스)	1,635	성적(40%)+거리(60%) ± 생활관 상벌점 + 장기 거주 신청자(연간) 가산점 10점 (신입생은 성적 만점 적용)
고려대	학생기숙사(직영)	540	기숙사 신청 인원을 고려하여 전형별, 모집 단위별, 남·여별 입학 석차순으로 선발 (수능 점수로 선발하지 않음)
	에듀21 고려대 기숙사(민자)	580	원서 접수 당시 기재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고려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선발
서강대	벨라르미노 학사, 곤자가 국제학사	300	신청 인원내 따라 성적, 통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발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1,214	부모 주소 서울(노원구·도봉구 제외) 및 인근 지역(경기 과천, 안양, 시흥, 군포, 의왕, 성남, 광명, 부천) 제외, 소득분위 60점, 거리 40점 점수에 따라 선발
서울시립대	생활관(서울)	203	추첨
성균관대	명륜학사(서울)	입사 선발 원칙 참고	2월 1일 모집 안내 게시 예정
	봉통학사(수원)	우선 선발	2월 1일 모집 안내 게시 예정
숙명여대	명재관 외	-	서울과 인천, 경기 이외의 지방에 거주하는 신입생 (단, 인천 및 경기도 도서 지방, 농어촌 읍면 지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 추첨 프로그램 통한 무작위 추출
연세대	생활관(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기숙사	3,431	1학년 신입생(체능 계열 및 일부 예능 계열 학생 제외)은 국제캠퍼스에서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
이화여대	E-house, 한우리집, I-house	-	서울 지역 제외, 무작위 추첨
중앙대	생활관	-	입학 성적 기준, 정책적 배려 대상자, 특별 사유 대상자는 우선 선발
한국외대	Globee Dorm, Global Hall(서울캠퍼스)	469	대학과의 거리가 원거리 순 (거리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직선 거리를 원칙으로 함)
	제2학생 생활관	148	남학생 전용, 원거리 및 성적(입학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
한양대	개나리관	52	여학생 전용, 원거리 및 성적(입학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
	제5학생 생활관(행복기숙사)	389	남·여 모두 가능, 원거리 및 성적(입학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
홍익대	제1, 2, 3기숙사	1,050	지원자 입학 성적 석차 순으로 선발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

자료 각 대학 홈페이지 및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 신입생 선발 인원 미정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은 인근 지역 출신을 제외한 후 소득 분위 60점과 거리 점수 40점을 합산하여 선발한다. 전체 수용 인원 2천428명 중 50%인 1천214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한다.

서울시립대는 추첨으로 선발하는데 2020년 기준 1천154명 선발에 2천138명이 지원해 1.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숙사 수용률이 11.4%로 낮고 비용이 2인실 기준 14만8천 원으로 매우 저렴해 입사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와 이화여대 역시 지방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해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

대부분 1월 수시 합격생의 입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시 합격생을 위한 모집은 2월에 예정돼 있다. 대학 기숙사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경기숙사,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연합생활관도 눈여겨볼 만하다.

코로나19 영향 운영 변동 불가피

2020학년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기숙사 운영을 중지하거나 축소 운영해왔다. 2021학년 1학기 역시 수업 방식에 따라 기숙사 운영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균관대는 1월 중순 공지하기로 했던 2021학년 1학기 기숙사 모집 일정을 2월 1일로 연기하고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축소 또는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중도 입사, 시험 기간 단기 입사 등 탄력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연세대 융합인문사회과학부 1학년 김다운씨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학생 등 소수의 학생들만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RC 교육 등 기숙사 프로그램이 전부 온라인으로 이뤄졌는데 올해에는 RA(Residential Assistant)로서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후배들과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